

BBC

2011. 12. 01

## 박물관 무료화 정책: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방문<sup>1</sup>

Free museums: Visits more than double



*BBC의 예술 분야 담당기자 David Sillito는 무료 박물관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2001년부터 정부로부터 입장료 지원을 받은 박물관들이 지난 십 년간 방문객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2010년-2011년 13군데 박물관에 18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방문하였고, 이러한 방문 수치는 2000년-2001년 사이에 7백만 명의 박물관 방문객 수치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다.

12월 1일 목요일은 영국 노동부가 국립 박물관의 무료화 정책 결정이 1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

<sup>1</sup> 출처 : <http://www.bbc.co.uk/news/uk-15979878>

문화부 장관 제레미 헌트(Jeremy Hunt)는 무료 박물관과 갤러리들은 “모두를 위한 문화를 확증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박물관 무료 입장에 해당하는 박물관들은 모두 런던 빅토리아&알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과 자연사 박물관(the Natural History Museum)으로 2001년 12월 1일부터 국가의 문화 유산에 광범위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계획의 일부로 시작되었다.

## 관광객 수입

노동-문화비서관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 현재는 바론 스미스(Baron Smith of Finsbury) - 는 당시 “영국의 문화예술적인 삶을 위한 흥미롭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DCMS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최고의 매력적인 장소 10곳 중 8곳이 무료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국립 박물관들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중 대영 박물관(British Museum),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은 입장료를 전혀 징수하지 않는다.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은 2000년 5월부터, 임페리얼 전쟁박물관(Imperial War Museum)은 2002년 7월부터 무료로 개방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0/2001년과 2010년/2011년을 비교 시 런던 (박물관)에 입장료를 부과 하던 시절보다 박물관 방문객이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1년 DCMS의 후원을 받은 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은 총 4,380만 명이었다.

10년간, 국립해양박물관(National Maritime Museum)의 방문객은 80만 명에서 240만 명으로 200% 증가하였다. 자연사박물관은 160만 명에서 470만 명으로, 190% 가까이 방문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은 1백만 명에서 260만 명 가량으로 방문객 수가 증가하였다.

테이트 이브스(Tate St Ives), 임페리얼 전쟁박물관(Imperial War Museum)의 벨파스트 호(HMS Belfast), 전시 내각실(Cabinet War Rooms)과 덕스포드 임페리얼 전쟁박물관(the Imperial War Museum Duxford)은 여전히 입장료를 부과하고 있다.

DCMS는 무료화 정책을 통해 세계 각지의 많은 방문객들을 박물관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해외 박물관의 입장료와 비교해 보면, 뉴욕 MoMA(25달러/21파운드),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10유로/8파운드 50센트),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15유로/12파운드)이다.

## 과거 입장료 부과 박물관 목록

영국 관광청에 따르면, 영국의 주요 박물관, 갤러리는 연간 10 억 파운드의 수익을 해외 관광객들로부터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레미 헌트는, "영국 박물관/갤러리 무료화 정책은, 문화는 소수의 행운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한다." 그리고 "특히 현재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무료화 정책의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롭다." 고 언급하였다.

스미스 경은 박물관 입장료 부과와 상승세 흐름을 변경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는 "영국의 문화, 역사, 예술, 과학, 지식의 저장고/박물관을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느껴왔다. 그리고 특정 박물관에서 부과하는 다소 값비싼 입장료는 박물관 방문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장벽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입장료 부과라는 장벽을 제거한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며, 상당히 성공적인 결정이었던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그의 의견을 밝혔다.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 런던
과학산업박물관, 맨체스터
영국 국립석탄박물관, 웨이크필드
국립 축구 박물관, 프레스턴
국립 해양 박물관, 런던
리버풀 국립 박물관
국립 철도 박물관, 요크
자연사 박물관, 런던
국립중앙역사 박물관, 허드포드셔 트링
민중역사박물관, 맨체스터
영국왕립무기박물관, 리즈
빅토리아 앤 알버트, 런던

## ‘진정한 혜택’

영국 전역의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을 대표하는 독립 기구인 영국 박물관 후원가 협회(the British Association of Friends of Museums) 의장인 Michael Fayle 에 따르면, 박물관 무료화는 그 수치를 통해 무료 입장 박물관이 대중에게 “진정한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박물관들은 주로 증가한 방문객들을 위한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예로 장시간 전시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직원들을 필요로 한다.

다수의 박물관들이 카페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또 다른 박물관들은 최소한의 기부를 요구하기도 한다.

Fayle 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오전에 들은 의견 중 하나는, 중앙 정부 기금이 가능하지 않을 때 최대한 무료화에 대한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한 재원 조성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 했다.

하지만, 그는 “블록버스터”급 전시회의 입장료 부과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종류의 전시회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다. 하지만 입장료를 통해 전시회 비용을 충당해야 할 만큼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즉, 특정 사람들을 놓치는 것이라고 Fayle 는 이야기 하며, 많은 관람객들이 붐비는 인파로 인해 관람 경험이 감소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어떤 이들은 유료 전시회의 개최(holding paid-for exhibitions)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무료 관람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아해 하기도 한다.”고 이야기 했다.

박물관 무료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정당간의 합의로, 지난해 지출 검토에서 확보한 기금이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 있는 국립 박물관들은 2001 년부터 입장이 무료화를 시작하였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세 개의 국립 박물관들 중 하나인, 발파스트에 있는 얼스터 박물관(Ulster Museum)은 북아일랜드의 다른 박물관들 두 곳이 유료인 것에 반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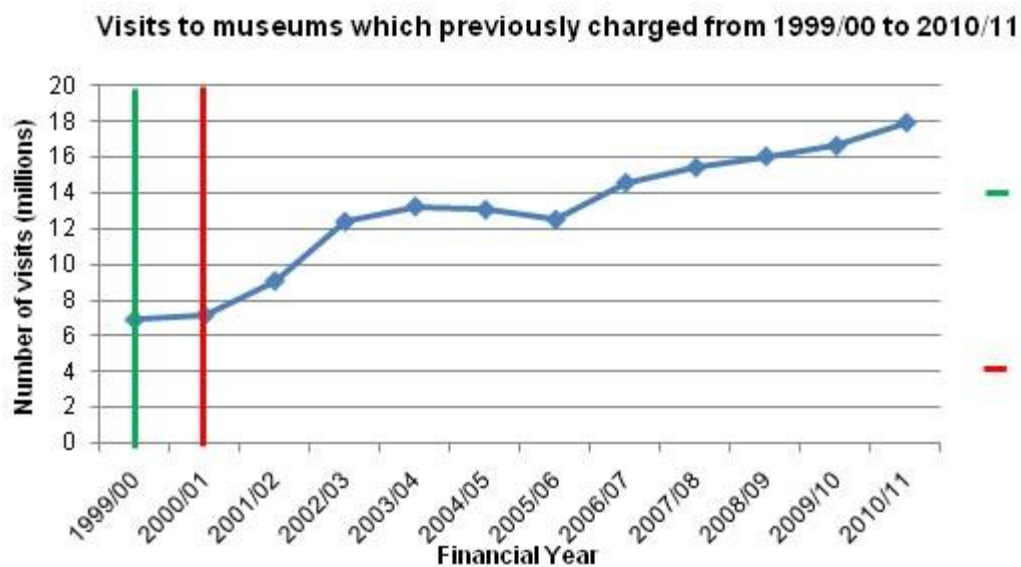
#### <관련 자료> DCMS – 박물관 무료화 정책관련 2010/2011 년 수치<sup>2</sup>

##### 과거 입장료 부과 박물관의 2010/2011 년 방문수치 변화

Museum	2000/01	2010/11	% change since 2000/01
Imperial War Museum (London)	661,804	1,095,442	65.52%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Manchester	287,814	638,347	121.79%
National Maritime Museum	799,777	2,433,163	204.23%
National Museums Liverpool	710,210	2,622,228	269.22%
National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National Railway Museum)	485,785	630,396	29.77%
National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South Kensington)	1,366,879	2,766,994	102.43%
Natural History Museum (South Kensington)	1,630,466	4,682,783	187.21%
Natural History Museum (Tring)	61,272	126,864	107.05%
Royal Armouries	225,141	343,582	52.61%
Victoria & Albert Museum (South Kensington)	936,652	2,619,505	179.67%
<b>Total</b>	<b>7,165,800</b>	<b>17,959,304</b>	<b>150.63%</b>

<sup>2</sup> 출처 : [http://www.culture.gov.uk/what\\_we\\_do/museums\\_and\\_galleries/3380.aspx](http://www.culture.gov.uk/what_we_do/museums_and_galleries/3380.aspx)

1999 년/2000 년 - 2010/2011 년 사이, 무료화 전/후 증가한 방문객 수<sup>3</sup>



<관련 기사 목록>

보도날짜	언론명	기사제목(번역)	기사제목(원문)	링크주소
2011-12-01	BBC	전세계 박물관 입장료	Museum entry fees around the world	<a href="http://www.bbc.co.uk/news/entertainment-arts-15982797">http://www.bbc.co.uk/news/entertainment-arts-15982797</a>
2011-12-01	BBC	10년간 자유를 누린 박물관들	Museums enjoy 10 years of freedom	<a href="http://www.bbc.co.uk/news/entertainment-arts-15927593">http://www.bbc.co.uk/news/entertainment-arts-15927593</a>
2011-12-01	BBC	박물관 비용은 얼마나 무료화되었는가?	How much do free museums cost?	<a href="http://www.bbc.co.uk/news/entertainment-arts-15970638">http://www.bbc.co.uk/news/entertainment-arts-15970638</a>
2011-11-29	BBC	기념물이 밤에 점등되어야 하는가?	Should monuments be lit at night?	<a href="http://www.bbc.co.uk/news/magazine-15934993">http://www.bbc.co.uk/news/magazine-15934993</a>
2011-11-04	BBC	폴 오그래디(Paul O'Grady)의 Lily Savage 의상이 리버풀에 전시된다.	Paul O'Grady's Lily Savage costumes displayed in Liverpool	<a href="http://www.bbc.co.uk/news/uk-england-merseyside-15591566">http://www.bbc.co.uk/news/uk-england-merseyside-15591566</a>

<sup>3</sup> 출처 : [http://www.culture.gov.uk/what\\_we\\_do/museums\\_and\\_galleries/3380.aspx](http://www.culture.gov.uk/what_we_do/museums_and_galleries/3380.aspx)